



정교회 주보



성 테오도라 왕비 수녀

- 심판 주일 / 금육 주일
- 성 라브렌디오스 순교자
- 제 6조, 조과복음 6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6조 부활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심판 주일 시기송 / 220, B 271
- 사도경 : I고린토 8:8~9:2 / 봉독서 432
- 복음경 : 마태오 25:31~46 / 136, B 9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테오도라 왕비 수녀

성인은 덕이 충만한 부모로부터 양육되어, 부모의 모본을 따라서 온 생애를 살았습니다. 왕비의 영예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우선하였고, 육체적으로보다는 영적으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왕궁에서도 사람들 마음에 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애쓰면서 기도와 금식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사탄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성인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남편이 성인에 대한 사랑을 잃게 하고,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성인을 하녀로, 외부의 여인을 왕비로 앉히면서 못되게 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인은 아이들과 왕국에서 멀어지면서 오 년 동안 숲과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고통도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남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혼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더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인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다 들어 주셨습니다. 성인의 남편은 회개하였고, 성인을 더 큰 영예를 가지고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성인은 남편을 잘 내조하여 세상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선의 원천이 되고, 성당과 수도원의 설립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남편이 안식한 후에 성인은 수도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13세기)

참된 구원의 길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쓰리오디온 기간 중 세 번째 주일인 최후의 심판주일(금육주일)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때 주님의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기간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면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 들였느냐, 또한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었으며,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느냐’(마태오 25:35-36)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때 합당한 답을 할 수 있어야 의인들이 사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적, 영적 또는 물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비우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 즉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인 이들과 한몸이 되어 고통을 함께 나누셨던 삶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모든 것을 비우고 가난한 이들이 겪는 고난의 길을 걸어 갑니다. 세리였던 자캐오도 주님을 만나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집에 모시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

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러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줄 때 주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과,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마태오 25:34)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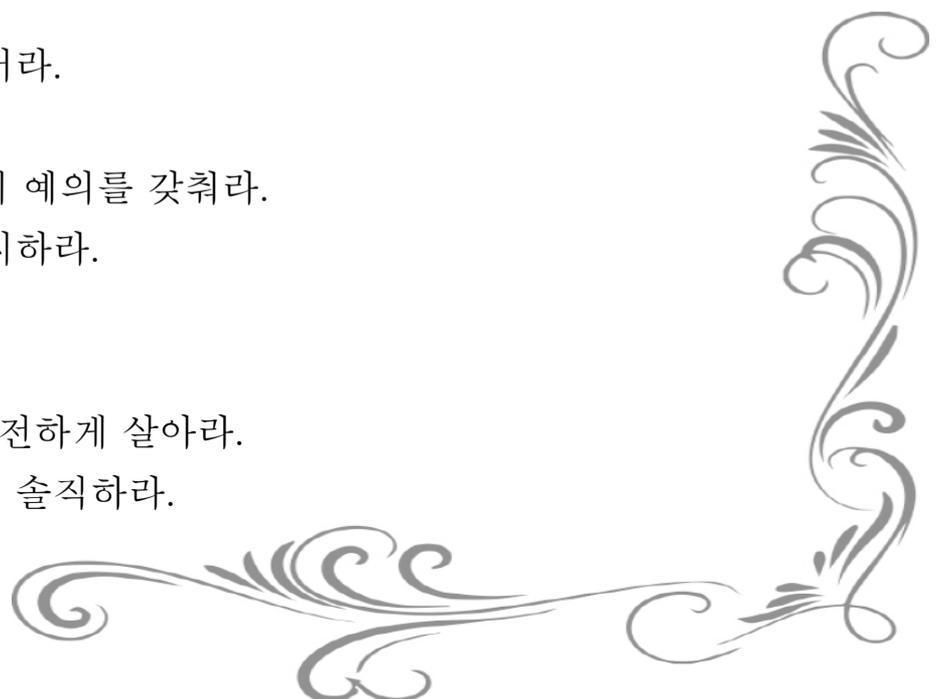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한 55개의 금언(1)



(+토마스 홉코 신부, 1939-2015)

* 토마스 홉코 신부님은 자신의 많은 책과 (기고한) 글들, 설교들과 함께 단순하지만 힘이 있는 한 묶음의 영적 금언들을 말씀하셨고, 이것들은 수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막 대사순절을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훌륭한 안내표지이며, 진정으로 정교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길러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
2.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라.
3. 훈련에 의해 실천하고 있는, 지킬 수 있는 기도의 규칙을 지녀라.
4. 주님의 기도(주기도문)를 하루에 여러 번 하라.
5. 다른 일로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때에 끊임없이 되풀이하게 되는 짧은 기도를 가져라.(이를테면 예수기도!)
6. 기도할 때에 약간의 '메따니아'(정교회에는 기도나 예배때 하는 동작으로서 허리를 깊이 숙여 손으로 땅을 짚으며 하는 '작은' 메따니아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마치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절을 올리는 것처럼 하는 '큰' 메따니아가 있다)를 하라.
7.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으라.
8. 교회가 가르치는 금식규정을 지켜라.
9.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침묵 속에 지내라.
10. 자선을 베푸는 일을 드러내지 말고 하라.
11. 규칙적으로 전례예식에 참석하라.
12. 고백성사와 성체성혈성사 참석을 규칙적으로 하라.
13.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생각과 느낌들에 얽매이지 말고 애초에 잘라버려라.
14.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규칙적으로 토로(吐露: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어서 말함.)하라.
15.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라.
16. 좋은 책들을 한 번에 조금씩 읽어라.
17. 성인(聖人)들과 친교하는 관계를 만들어라.
18. 평범한 사람이 되라.
19. 모든 이에게 공손하라. 먼저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20. 당신의 방을 깨끗하고 잘 정돈되게 유지하라.
21. 건강하고 유익한 취미를 가져라.
22.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23. 하루를, 아니 그저 하루 중 잠시라도 온전하게 살아라.
24.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하라.
25. 작은 일에 충실하라.



대교구

■ 참회의 만과

대사순절 전 주일인 다음 주일(3월14일) 성찬예배 후에 참회의 만과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대사순절을 시작하여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합시다.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 이번 주간은 육류를 금합니다

대사순절에 들어가기 전 주간인 이번 주간은 육류는 금하고, 생선, 달걀 및 유제품은 허용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온라인 단체 모임

코로나19로 대면모임이 어려워져서 온라인으로 단체모임을 합니다. 매주일 오후 1시에는 신데즈모스, 오후 2시에는 부인회, 오후 3시에는 예비신자 모임을,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주일학교 모임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 신자분들은 보내드리는 줌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온라인 단체 모임

코로나19로 대면모임이 어려워져서 온

라인으로 단체모임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주일학교, 토요일 오후 3시에 남성회, 여성회 모임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자분들은 줌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2월 6일(토)에 크리스토퍼 신부의 아들 요한(John)이 세례성사를 받았고,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와 빠따빠야 사모께서 대부, 대모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2월 20일(토)에는 소티리아 교우의 아들 김규형이 엘리사로 세례성사를 받았고, 엘레니 최병희 교우께서 대모를 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빛이 이들과 대부모들과 가족 모두를 비춰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생활해나가길 기원합니다.

■ 온라인 단체 모임

코로나19로 대면모임이 어려워져서 온라인으로 단체모임을 합니다. 매주일 오후 5시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성회, 여성회 신자분들은 줌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